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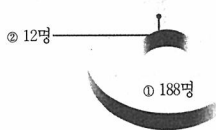
총학생회 인식도 설문조사

총학생회 필요, 서울 93% · 용인 95%

서울·교육의 질 개선, 용인 - 학생복지 개선 요구

1.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1-①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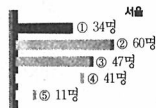
- ① 학생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 ② 등록금 협상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 ③ 학생들의 복지시안 개선을 위해
- ④ 다른 학교도 다 있기 때문에
- ⑤ 기타

3. 1-②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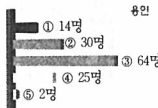
- ① 총학생회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 ②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 ③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 ④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⑤ 기타

4. **총학생회 후보의 공약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 ② 교수 충원, 교양과목 신설 등 교육의 질 개선
- ③ 교통문제, 식당문제 등 학생 복지 개선
- ④ 학생 및 과학생화회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 및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 ⑥ 기타



용인



32명

5. 이번 총학생회 후보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② 3



학생회 선거 현 실태 보도

학생회에 사람이 없다!

후보도, 유권자도 없는 총학생회 선거로부터의 탈피

서울 3년연속 연장선거, 용인 단대장 후보없어 재공고

외부적 학생회 탄압과
내부적 무관심으로 후보등록자 없어

[illegible]

후보자 피선거권은 3년 이상 경연으로 지내지 않은 후임 사법관을 위한 것으로, 3년 이상 단선으로 산하기 지내지 않은 후보로 보고 되는데, 22대 법원장 23대 총합의례는 분명 법원장이나 사법관을 지내지 않은 후보는 바가되어 또 열거할 수 없다고 하는데, 22대 총합재판회의는 22대 총합재판회의 회장이었던 후임지판의 집정관직을 지내지 않은 다른 산하기관들은 23대 총합재판회의 24대까지 고르기로 열거하는데, 서유택에게 김 모영은 총합재판회의 공판은 분명 총합재판회의가 아니라 사법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바, 이들을 변화하는 중립적영원성인 이삼진 간부는 결국 수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좌파적인 이유로 오지만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23대 고르지 못한다.

학생들의 무관심 투표율 5년 평균 50.38%

전국적으로 총학생회와 동아리 부회장은 10년 전보다 11%나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진 유망수(수석) (<http://news.sbs.co.kr>)에 따르면 92년 전국적 투표율은 69.9%였으나 2008년에는 52.69%로 11.21% 하락했다. 유권자라고 하여는 아니다. 97년에도 2001년까지 최 5년 5년 간 양해록이 투표율은 평균 53.3%였다. 수석은 유권자 투표권을 부기 위해 내리자니 내리자니, 선을 어찌 정쟁만 고교에 돌려 버렸을 조상호는 모교에서 6년 넘직 있을 교장이 되어 버렸다. 세화로 90년대 후반에는 90년대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정장이 된 정경태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당선직 7명 중 3명은 전생가임을 이름만 따와서 92년에 연정부터는 투표율도 계속 상승한 것이다 중앙대학교 중앙학생회의 정원 총 1천 명을 한 명도 가능하지가 않았다. 유권자임에 총학생회를

2000년도부터 선거세칙 7장 24조 1항에 투표시한을 아
에 3일로 정해 놓았으며 연장과 관련한 세칙은 없다.

학생, 적극적으로 선거 참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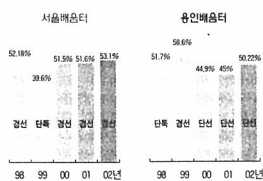
지난 7월, 8월(가)의 대의원선거는 2년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대입에 있어 대학이 어떤 학생에게 선거의 투표참여에 대한 높은 질문은 많은 학생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대입을 보는 것은 80%에 불과하다. 또한, 학생들의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주요 이유는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사와소통이 부족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과 피드백은 공론화되었는지? 사실상의 학생의 경우 '소수'인, 비선거의 학생은 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닌 31%소수점 전체적인 반올림의 학생이 답했고, 응답비율의 경우 47%의 학생이 공통문제, 식·단품에 대한 복지 개선에 답했다.

한편, 용인배우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을 마친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후보가 누구지기는 아는데 대한 질문에 68%만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공짜에 대해서 아는데 대한 질문에는 22%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무관심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선거운동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실한 홍보와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자세를, 학생들은 방관과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총학생회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와 대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hanmail.net

<최근 5년간 투표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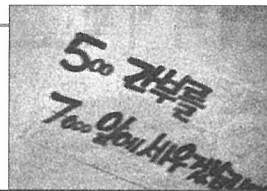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2002학년도 통계 영어연수생 모집 ● 연수대학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 ● 연수기간 2003. 1. 6~2. 15 (5주 연속, 1주 사바 문화체험)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영어연수 신청자격에 대한 특전 가. 학위취득은 본교 교양과정 3학점으로 인정함. 나.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총징비 약 5,884,000원 (식비와 교육재료비 별도) ● 경비내역 가. 아카데미 관련 경비 : 수업료, 기숙사비(식비 제외), 필드트립 경비, 각종 행사비, 시설 이용료, 의료보험료, 사바 문화체험 경비 나. 항공료 : 여권 수록비 : 항공료, 여권 및 비자 수수료 등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02. 11. 11(월)~11. 15(금) ● 델라웨어대학교 영어연수 프로그램 소개 가. 우리 대학교 복수학위에 추진 대학 나. 미국내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진행 다. 미 사바 및 하와이 문화체험 ● 문의처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담당 황승규 (Tel: 961-4387, E-mail: interex@hufs.ac.kr)	2003학년도 교직·정보 이 수 신청 공고 - 신청자격 : 교과교육과 설치된 학교의 학생으로 1학년(2차제출) 재학생 및 2002학년도 제2학기 석학생(3, 4학년제) 중 교과미수신증을 한 사설이 있는 학생 - 신청기간 : ▶ 1차(일반생) → 2002. 11. 18(월)~11. 22(금)까지 ▶ 2차(본인생) → 2003. 4월 예정 ※ 제1 및 제2로 입학한 학생(영어학부 제외)은 학과 또는 전공이 배 정된 후 2002년 4월(2차 본인생)에 신청해야 합니다. ※ 1, 2차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입니다. - 신청방법 가. 1학년(2차제출 재학생) - 온라인신청 학교홈페이지 - 취업정보(PULAZI(학부)) - 응모건 - 수험정보 - 교과미수신증(등록목 이표 로 남아 있음) 나. 석학생(3, 4학년제)은 사립대학 교육과 및 종단 교수연구실에 교과미수신서(상당정 성 서함) 제출 - 신청자료 : 교과미수신서 신청 학생수가 아래 소속학과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 에 의해 제한한다. 가. 1학년(2차제과)까지의 합합생원이 무수한 지점(총 평점평균 기준) 나. (가항)에 도달한 경우 전공생원이 무수한 지. ※ 실제 취직할 경우 전공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학명</th> <th>학과 · 전공</th> <th>선발 인원</th> <th>대학명</th> <th>학과 · 전공</th> <th>선발 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시애틀</td> <td>영어교육과</td> <td>10</td> <td>11</td> <td>심리</td> <td>무엇이든</td> <td>5</td> </tr> <tr> <td>시애틀</td> <td>영어교육과</td> <td>9</td> <td>7</td> <td>경산</td> <td>경영학과</td> <td>8</td> </tr> <tr> <td>시애틀</td> <td>화학공</td> <td>9</td> <td>7</td> <td>전남</td> <td>응용화학</td> <td>5</td> </tr> <tr> <td>독립대학</td> <td>노인</td> <td>15</td> <td>14</td> <td>충청남도</td> <td>유치학과</td> <td>12</td> </tr> <tr> <td></td> <td>노인</td> <td>20</td> <td>20</td> <td>충청북도</td> <td>유치학과</td> <td>4</td> </tr> <tr> <td>독립대학</td> <td>언어학</td> <td>40</td> <td>40</td> <td>전북</td> <td>언어학과</td> <td>4</td> </tr> <tr> <td>독립대학</td> <td>물리학</td> <td>10</td> <td>4</td> <td>대전광역시</td> <td>한국사상론</td> <td>15</td> </tr> <tr> <td>독립대학</td> <td>이해학</td> <td>15</td> <td>15</td> <td>광주광역시</td> <td>철학사상론</td> <td>15</td> </tr> </tbody> </table> 5. 선발결과 : 2003년 5월 중(지문 및 인터뷰) 6. 유의사항 가. 교과과정 이수신청을 하여 교과과정 이수예정자가 선발된 학생만이 교환학생을 취학할 수 있음. 나. 2002학년도 교과과정이나이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교과과정 취학을 위한 부친장 이 수 학업이 종료 21개월에서 30개월으로 상환조정이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바랍니다. 다. 전과 학생은 전과 학과에서 이수한 실적으로 선발 함. 2002. 11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 인원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 인원	시애틀	영어교육과	10	11	심리	무엇이든	5	시애틀	영어교육과	9	7	경산	경영학과	8	시애틀	화학공	9	7	전남	응용화학	5	독립대학	노인	15	14	충청남도	유치학과	12		노인	20	20	충청북도	유치학과	4	독립대학	언어학	40	40	전북	언어학과	4	독립대학	물리학	10	4	대전광역시	한국사상론	15	독립대학	이해학	15	15	광주광역시	철학사상론	15	교양특강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행정이론과 그에 따른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행정학 특강이 개최되니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연 제 : 2002. 11. 22(금) 16:00 어 디서 : 사회과학관 503호 무엇을 : 국회와 행정부 누 가 : 송태호 서기관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실  2002. 11. 교 양 과 정 위 원 회	다국어 검색서비스 이용약관 도 시 관 ● 서비스 내용 문자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그 동안 검색시스템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고, 카드목록 형태로 서비스하였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태깅이 될 된 데이터 등 5개 특수의국어 자료를 도입하여 WEB에서 원리로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다국어 검색서비스를 10월 2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서비스 방법 MS Windows 2000 이상의 PC에서 다국어 언어코드가 제공되므로 일본어나 Windows 2000 이상의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가령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웹으로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료실 각종별로 다국어 검색엔진 PC 2대씩 총 6대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종단도서관은 자체 계획에 따름) ● 서비스 이용시간 예산사무국으로 정보비 총본방 확보지 관한 관계로 당분간 다국어 검색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운영합니다. 평일 : 09:00 ~ 12:00 /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운영안함. ● 향후 계획 ▶ Windows 98 PC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다국어 검색시스템 별도 개발. ▶ 다국어 서비스를 확충하여 24시간 검색서비스 제공 예정. ▶ 5개 외국어 이외의 외국어도 추후 서비스 제공 추진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 인원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 인원																																																												
시애틀	영어교육과	10	11	심리	무엇이든	5																																																											
시애틀	영어교육과	9	7	경산	경영학과	8																																																											
시애틀	화학공	9	7	전남	응용화학	5																																																											
독립대학	노인	15	14	충청남도	유치학과	12																																																											
	노인	20	20	충청북도	유치학과	4																																																											
독립대학	언어학	40	40	전북	언어학과	4																																																											
독립대학	물리학	10	4	대전광역시	한국사상론	15																																																											
독립대학	이해학	15	15	광주광역시	철학사상론	15																																																											

2002. 11

대외협력본부장

사 법 대 학 장



학생운동, '소멸' 이나 '활성화' 나

대학 학생회선거 10년간 분석, 투표를 하락 속 비운동권 성장



92년, 전국적 투표율 63.9%

10년간 92년 말 선거 결과다. 당시 전대기전에서 조사한 101개 대학중 선거가 완료된 76개(1991년 11월 13일 집계상황)대학의 평균 투표율이다. 놀라운 결과다. '93일 연장투표',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가 난무하는 최근의 투표현황에 비하면 말이다. 당시 투표율이 80%를 넘어선 대학은 서울신학대, 덕성여대, 전주교대, 공주대 등이다. 또 70%를 넘어선 대학은 서경대, 상명대, 한림대, 상신여대, 국민대, 동덕여대, 숭실대, 여주대, 순천대, 전북대, 천안대, 금오공대, 성상여대, 인천교대, 합성대 등이었다. 반면,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학은 강원대(48.77%), 조선대 51.79% 등이었다.

00년, 전국적 투표율 52.69%

지난해 학생네트워크에서 집계한 101개 대학의 평균 투표율은 52.69%였다. 평균 투표율은 2.05%인 강남대, 광주교대, 경주교대만이 70%를 넘겼다. 10년간 85.9%로 최고 투표율을 보였던 전주교대는 53.55%의 투표율에 그쳤고, 80.99% 투표율을 보였던 서울신학대는 10년후인 지난해 선거에서 52%에 그쳤다. 이렇듯 낮아진 투표율은 투표기간 연장이라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한신대는 5일동안 투표를 진행하는 불명예를 넘겼고, 서울대, 명지대, 강남대는 4일동안, 홍익대, 중앙대, 경희대, 경기대 등 19개 대학은 5일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하루만에 50% 투표율을 넘긴 대학은 전북대, 목포대, 부경대, 경성대, 청주교대 등이 불과했다. 또 '후보가 없어서', '투표율이 낮아서', '부정투표등 파행선거' 등으로 10여개 대학이 선거가 연기됐다. 10년 전 91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11%가 떨어진 지난해 선거는 투표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더 저

조한 투표율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 완만한 하강 97년말 급하강

10년간의 전국대학선거 투표를 조사결과 90년대 초반부터 완만하게 하강하기 시작한 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97년말 선거에서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한다. 95년말 선거까지는 투표율 50% 미달로 인한 연장투표, 선거연장 등의 현상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96년 말 몇몇 대학(아주대, 숙명여대, 전주대, 경신대 등)에서 투표를 미달에 따른 재선거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70%이상의 투표율도 서울신학대, 전주교대, 안동대 등 몇몇대학에 그치기 시작했다. 투표율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저하된 97년말 선거에서는 인천대, 경희대(수원), 부산의대 등 몇몇 대학만이 60%를 넘었고 90%이상의 대부분 대학들이 50%대만을 머물렀다.

투표를 가장 높은 대학, 전주교대...95년말엔 94%

10년간의 대학별 투표율 조사결과 최고의 투표율을 자랑한 전주교대는 97년부터 급격한 저하를 보이기 시작했다. 91년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던 전주교대는 95년 선거에서 94% 투표율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이듬해인 96년에는 78%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97년말 (80.7%)부터 80%대로 저조해진 투표율은 지난해 53.55%라는 투표율에 그쳤다.

매해 선거에서는 전반적인 흐름과 무관한 '이변' 현상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96년 말 선거에서 인제대와 순천대가 투표율(69%, 64.9%)과 득표율(88%, 77%)을 각각 기록한 것.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96년 당시 공안당국의 사법처리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던 학생운동진영내 민족해방

계열, 계대가 총학생회장들이 '96년 연세대 사건'의 주역인 통일선봉대 대장을 역임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의외의 결과이다.

'비운동권' 총학생회도 진보적 정치활동 한다

최근의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기존의 것(이념적 지향성-LN-PD)만을 갖고 구분할 수 있는 한도 제외되고 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벽이 사실상 흐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99년 비운동권 후보로 분류돼 당선된 서울대 총학생회 '평안'의 10월 은 방북 발해유적답사 사업을 추진했다. '남북 대학생교류' 사업은 전통적으로 통일운동을 최대로 설정했던 '민족해방계열' 총학생회가 추진해온 사업임을 비추어보면 '사건' 안에는 분명하다.

또 98년 4·11총선때는 당시 비운동권 학생회로 분류된 총학생회에서 '2000총선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를 결성해 추진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낙선낙선운동에 적극 결합한 것이다. '운동권' 총학생회가 선거에 아무런 대응도 못할까 오로지 '비운동권'이 앞장서서 74개 대학 총학생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 것이다. 당시 대학생유권자 운동을 주도한 건국대,상지대, 계명대 등의 총학생회는 선거당시 '비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된 학생이다. 이들은 또 '총선시민연대'와 함께 5만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가자'를 펼쳐 바쿠지 행사를 대학로에서 대규모로 열어서 기성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학생운동을 과거 잦대로 구분하면 '비운동권'으로 구분되던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개혁과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은 기존의 학생운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전망은 있는가? 비판과 논란

탈정치화, 투표율저하, '비운동권' 성장 등의 최근 선거 양상은 학생운동의 정황을 아슬하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구사회와 일본의 최근과 학생운동처럼 한국학생운동도 곧 소멸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낙관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학사회 학생운동을 하고 지금은 노동계에서 활동중인 정동원(88학번, 보건의료산업연맹)씨는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는 누구나 현실변革 요구와 사회비판의식이 존재한다. 문제는 운동에너지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모아내느냐이다. 학생운동에너지가 정치력을 잃어가고 학생들을 대상하기는데서 문제는 시작됐다. 학생들은 분명 기존 정치세력과 이에 대항하는 운동세력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있지만 진보적 정치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동권 내부의 혁신에 답은 있다"라며 비판적 전망을 반박했다.

NL-PD라는 과거 잦대로 학생운동을 바라보던 분면 위기다. 이미 적지않은 대학에서 NL-PD의 이념적 지향을 가진 세력이 '극소수'로 전락되거나 '소멸'했다. 한층,

전학협 등의 전국적운동단체로 편입하지 않는 대학생활의 진보적 정치활동은 분명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권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을 비롯, 최근의 인터넷운동, 교육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생들은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학생 네트워킹의 정치활동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네트워킹의 '사이버 시위'는 과거 '가두시위'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래는 현재 학생운동가들의 몫

학생운동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성정치인과 언론도 무시못할 네트워킹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등장하고 있고 비운동권이 '진보적 정치활동'을 하고, PD(민주민주계열)성향을 가진 학생운동권이 '통일' 운동에 나서고 있고 NL(민족해방계열)성향을 가진

학생운동권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사업과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벽이 허물어지고 정경관 대립이 희석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흐름들이 학생운동의 새로운 활로로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단체 상근자인 한호재(29세)는 "학생운동권이 정경관 주도권 다툼과 비생산적인 사상논쟁을 하루빨리 내내야 한다. 운동권이란 비운동권이든 사회개혁과 진보를 위한 모든 대학생들의 단결과 사회운동진영(재야운동과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시급히 형성해야 된다"라며 "새로운 세대에 담아야 하듯 80년대 낡은 사고와 습성을 버리고 운동조직체의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소멸'이나 '활성화' 나, 학생운동은 갈림길에 서 있다.

기사제공 : 유뉴스
(unews.co.kr)

웅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후보 발족식 및 공약분석

재단 · 학교발전 관련 구체적 공약없어

연중 문화 공연 및 강연 진행할 것

권위적 대의체제 해체 및 직접 결정 사이버 학생회 설립
"헛다! 캠퍼스 '대학대립' 24대 총학생회 선거 운동본부 출범식이 지난 8일(금) 후생복지동 소극장에서 열렸다. 모두 23명이 참여한 이날 출범식은 △총론 해설 △중앙선거운동본부 소개 △선거운동본부장 소개 △후보자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국 공언 △후보자 소개 △대항제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총론발표에서 2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장은 '대학대립' 집적 및 공약 해설서'를 통해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으로는 △집행력 학생회노선 폐기 △500원짜리 새우기 △대포성있는 권위적 대의체제 해체 및 직접 결정 사이버 학생회 설립 △등록금투쟁의 속전속결 △100개의 학문/문화공동체 창설 △1년 내내 연중공연연회 기획 △왕산 문화 1번지 문화의 공간 건립 운동 △마스터플랜, 설계조감도 △드롭과 싶어하는 실업자와 개성 △공공성의 대, 특화발전, 자곡등 그린벨트 해체 △중복학과 통폐합과 왕산 발전안 총투표로 결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선포식은 문화공연과 강연 등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명시한 데 반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재단공공성의 상이냐 특화발전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없고 집주적 학생회 노선 폐기와 권위적 대의체제 해체, 직접결정 사이버 학생회 설립 등에 대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공동화현상의 주된 원인인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약이 없는 등 허술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통학을 하는 김도원은 "교통문제와 관련한 공약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중복학과 통폐합 문제를 총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과는 왕산 폭자 발전안을 총투표

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다. 24대 선본의 기치는 '대학대립'이다. 크게 부수고 크게 세우겠다는 의미이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이번 선본과 선본의 공약에 합심한다는 반응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선본 측은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는 옳으나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준비없이 무조건 '부수기'부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장 우혜나(동화·마인어 88)원은 "24대 후보자들이 파격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다"며 "선관위에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동수(인문·사학 00)은도 "24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때 못한 것을 24대 총학생회에서 학우들에게 연신복무 해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세계철강 1강, 민영기업 포스코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영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역영역, 디지털영역, 스포츠영역 등 변화와 혁신으로 달려온 민영 포스코도 2년,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2년- 세계철강 1강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posco
수익과 세대를 공유했다
www.posco.co.kr



“쌀마저 개방되면... ... 농업은 끝이야”

‘쌀의 고장’ 경기도 여주군 백명성 이장의 한숨

통을 터뜨렸다. “그 협정은 우리 농민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다름없고, 공업 부문에서 이득을 보기위해 우리 농산물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면 개방했잖아. 협정한 사람들은 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나보지?”

좋은 쌀 만들었지만
값은 계속 떨어지고...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백이장은 기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사탕배를 시켰다. 여주쌀이라 그런지 윤기가 흐르는 밥이 잘도 먹으로 넘어간다. “밥 더 들어” 아주머니에게 한 공기를 더 달라고 청하는 백이장의 손 마디는 굳고 손등은 거칠었다.

20년동안 농사를 지었을 저 손, 경제사정의 그늘에 갇혀 오래 전부터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농촌을 지켰을 저 손, 밥그릇을 비운 후 백이장은 말했다. “정부는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지, 그 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쌀 만들었는데 도 계속 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 난단 말인가?”

단 말인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농사만 지 어는 그의 손은 지금, 건달 수 없이 허탈 해 보였다.

“민약 쌀마저 개방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백이장은 자신의 논으로 걸어나갔다. 벼는 일찌감치 다 베 어져 있었다.

“민약 쌀마저 개방된다면...” 그는 굳게 혀 웃었다. “농업은 끝나는 거지, 우리 가 5천원을 경작할 때 미국이나 칠레에선 5만원을 짓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자국가 정책을 써서 농업은 이미 파탄지경인 데...” 그는 계속 말을 흐렸다. 하늘은 서서히 회색빛에서 주황빛으로 변해갔다. 백이장이 입을 열 때마다 한 주먹씩 하얀 김이 빠져나 나왔다. 추웠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농사? 미래가 없어”

백이장은 농협도장에 갈 준비를 했다. 그의 벼를 판 다는 도매상이 왔다. 확인한 다고 한다. 도매상은 오지 않았다. 대신 도정인의 족 방에 그의 친구 박지관 (47)씨가 있다.

“농사? 끝났다고 봐야 돼, 더 이상 미래가 없 어” 박씨는 담담한 어조 로 말한다. “정책적으로 소 득을 보장해주지 않잖아, 연 필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든다고 할 때 최소한 100원으 로 팔아야 빛은 안 지는데 50원 에 팔아먹었다고 하면 누가 만 들려고 하겠어? 농사가 딱 그 꼴이니까.” 그는 최근 타 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 정(FTA)에 대해서도 분

추웠다. 입동이 하루 지난 79(금) 오전. 경기도 여주군에 내린 기자는 매설개 부는 바람에 몸을 잔뜩 움추렸다.

홍천만까지 다시 트랙을 타고 지난 경 갈음으로 변한 드넓은 논들이 눈에 보였다. 아무런 땅을 파도 풀은 보이지 않고 고운 흙만 나온다는 여주에서 나온 쌀은 옛부터 왕에게 올려지는 전상품이었다고 한다. 그런만큼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조선에서 가장 살 기 좋은 고장 중 한 곳으로 꼽힐 만큼 여 주는 예로부터 여유롭고 풍족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였을까, 농촌이 많이 어렵다지만 여주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사정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 는 이유는,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 는 백명성(48)씨의 삶을 통해 제 모습을 드러낸 여주는 결코 여유롭고 풍요롭지 도 않았다.

밤낮으로 일하지만 빛 5천만원

“커피는 없고, 이거라도 들지” 서울에서 내려온 손에게 구기자차를 대접하는 백명 성씨. 그는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읍2리 이장으로 1954년 이곳에서 태어난 여 주도박이다.

군대를 마친 79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그는 아내와 4명의 자식들과 함 께 살고 있다. 광둥이 아들 두 명이 이번 에 수능을 쳤다는 백이장은 “가족이나 대 학 다니는 딸 2명이 등록금을 대느라 농 협에서 용자를 냈는데 걱정이다”며 담배 에 불을 붙였다.

그가 갖고 있는 땅은 5천평 가량의 논, 논농사로 한해에 벌어들이는 실수입은

1,400만원인데 그 돈으로는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어 백이장은 막내아들이 다니 는 홍천중학교에 1년째 경비를 서고 있 다. 농사일이 끝난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 까지 숙직을 하느라 한 달에 이틀밖에는 집에서 잘 수 없다. 그의 아내 또한 중학 교에서 급식을 한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틀이 합쳐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된다. “농촌사람들은 다 그래, 농사만 지 어선 살 수 없으니 공장에서 만노종도 하고 청소부 일도 하고 그러지.” 밤낮 으로 일하는 그가 현재 진 빛은 5천 만원이다.

기고·오덕화 농민신문 편집부국장

왜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가

한·중 미분쟁이 터졌을 때 언론들은 일제 히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세이프 가드)를 소탕대신(小倉大士)로 몰아 부쳤다. 890만달러의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막 으려다 5억달러의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수출을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마늘산업에 대한 산업보 해구제 조치를 비난했다.

WTO(세계무역기구)규정상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는 정당했던 반면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당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문 제의 핵심을 지적하 는 대신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관점으로 몰고 갔다.

마늘뿐만 아니라 농 업보호에 대한 언론 의 이런 비판적 보도 성향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비교우위론과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중심의 경제논리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고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이 급격히 쇠 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고 의 틀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농업보호에 대 한 사회적 지지가 쇠퇴하고 있는 탓이다.

쌀을 포함해 우리 농업은 미국이나 중국, 유 럽, 그리고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 등 선진국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종목을 하나도 없다. 비교우위가 지금도 없고 앞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농업 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물론 아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 그 자체보 다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훨씬 큰 가치 를 지닌 산업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UR협상 때는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 업의 비교역적 기능(BTC)으로, 지금 WTO 농 업협상에서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다면 적 기능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왜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쌀농업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100만ha 논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액은 약 9조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논이 이 땅에 있으므로 해서 얻 는 경제적 가치는 농 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략 83조원 이 된다고 한다.

정리하면 쌀농업은 360억톤의 벼물(소와 호두 6개 다량의 담 겨)을 생산한 것 자체보다 화폐가 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훨씬 큰 가치를 지닌 산업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댁 홍수조절을 해주고 저수지 물을 끌어들여 150여종의 양질의 지하수를 저장한다. 이는 전 국민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도물(58억톤)의 2.7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우리 논에서 지라는 벼가 생산하는 산소는 연간 1,230만톤, 이와 비 슷한 양의 탄산가스를 동시에 흡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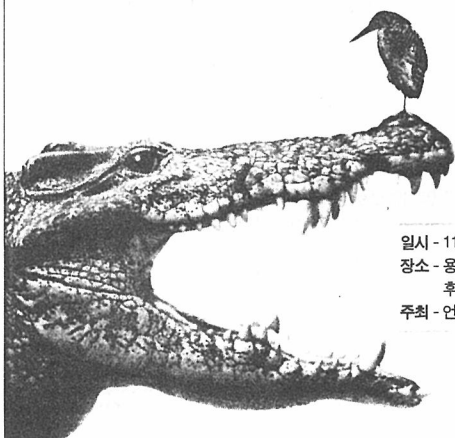
여기에 농촌시회의 유지, 통행, 전통문화의 보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더 나아가 식량안보나 도시의 인구집중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개발화하기 어 렵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가치는 농업을 단순히 경쟁력이라는 것에만 한정해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해준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 부 어가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 러한 농업의 비경제적 가치를 중시한 결과라면 우리의 근사적인 농업관에 대한 반성없이 농 업보호를 논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농업의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가 아닌

함께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윤인배윤터 정경토론회에 당선을 초대합니다



일시 - 11월 14일(목) 오후 4시
장소 - 윤인배윤터
후생복지관 1층 학생식당
주최 - 언론협의회

민족자주권론
외대학보

서강대 & KBS 방송 아카데미

미래의 방송인재를 꿈꾸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제 18기 예비 방송인 모집 -

1. 모집요강

모집과정	전형방법	지원 자격	수업 요일	수강료
방송기자	서류 - 면접	정규대졸/영구대3년 이상	주요일 - 화,목,토	2,290,000원
아나운서	서류 - 면접	정규대졸/영구대3년 이상	주3일 - A(반월, 수, 금) B(반월, 목, 토)	2,290,000원
홍소원/MC리포트	카메라테스트	초대졸/초대졸 이상	주3일 - 월, 수, 금	2,290,000원
구성작가		초대졸/정규대졸/영구대3년 이상	주3일 - A(반월, 수, 금) B(반월, 목, 토)	2,290,000원
드라마감독		나이의 학력제한 없음	주3일 - 월, 수, 금	1,980,000원
드라마교정	서류 - 면접	나이의 학력제한 없음 (단, 초교정 이수자)	주1일 - 금	900,000원
번역작가		정규대졸/영구대3년 이상	주3일 - 화,목,토	1,980,000원
연출		정규대졸/영구대졸 이상	주3일 - A(반월, 수, 금) B(반월, 목, 토)	2,290,000원
카메라영상	서류 - 면접	정규대졸/영구대졸 이상	주3일 - 화,목,토	2,290,000원
라디오방송제작		정규대졸/영구대졸 이상	주3일 - 월, 수, 금	2,290,000원
디지털비디오제작		정규대졸/영구대졸 이상	주3일 - 월, 수, 금	2,290,000원
디지털영상그래픽	서류 - 면접	초대졸/초대졸 이상	주3일 - 화,목,토	2,650,000원 (하드별도)

* 각 과정 인원수에 따라 합반, 분반, 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정에 따라서 학기 초에는 매일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및 접수

- 지원서 접수: 11월 11일(월)~11월 25일(월) AM10시~PM6시
- 교부처: 서강대 정문 안내실 / 접수처: 서강대 메리클 현관
- 인터넷 접수: www.sacca.ac.kr
- 공휴일에는 정문 안내실에서 '교부'만 하며,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705-8613-6, 인터넷 홈페이지 www.sacca.ac.kr

*** 서강대학교 GGVV 계열 아카데미 2003년도 1학기생 모집 ***
원서접수기간: 12월 6일(금) PM5시까지,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진단 · 해내 영품족

얼마니? 얼마니(ARMANI)!

유행처럼 번져가는 학내 명품족

명품을 통한 자기과시보다, 내면적 자기완성에 힘써야

흔히 '명품'이라 함은 노련한 장인의 손길로 물어나는 훌륭한 물건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런 '명품'들은 그 완성도나 예술성, 유명세만큼 가격 또한 엄청나...

언제부터인가 대학에서는 이런 유명 브랜드의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들을 몸에 두른 '명품'족들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유행처럼 번져...

이 같은 학생들의 '명품선호증'을 우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한 여학생은 "명품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과, 남들에게 뒤처지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돈이 생기면 바로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말한다.

단정한 학내의 이미지와 명품의 깊은 상관관계. 그들 중 대부분은 부모에게 기대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구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킨다. 하

지만 큰 문제는 한달 생활비에 맞먹는 명품구입을 단지 소유욕 충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문제점은 점점 발전해 최근에는 명품구입을 위해 사용한 카드값을 치르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있는 실정이다.

학생회관에서 만난 한 여학생은 "명품을 즐기는 학생들은 따로 모여 다닌다. 가끔은 너도나도 하나씩은 빼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에 나도 하나 사야하진 않나"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처럼 학내 명품족들은 동족 다나며 학내의 새로운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대학생들의 명품에 대한 수요는 각 유명 브랜드 업체와 대형 백화점의 판매전략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30·40대가 주요구매대상이던 여러 고가 브랜드들이 앞다퉈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학생들과 가까운 층으로 그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학생들의 명품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예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방학마다 휴가철 해외 유명 브랜드 상점 앞에는 한국인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져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각 상점에는 한국인 전문 판매사가 준비되어있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방학중 유럽여행을 다녀온 김재욱(정보안입금·디지털방송 01)군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 중 선물용이든 자신이 사용하는 명품하나 사오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먹을 돈, 잡잘 돈을 아껴가며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사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최근 TV쇼 광고를 보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의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을 위한 카드니, 20대 전용 카



드니 그 가지 수도 상당하다. 무분별한 카드회사의 카드 발급과 한 원인이지만 그만큼 카드사용이 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명품'이란 말 대신 '럭셔리 굿즈'(Luxury Goods)란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실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단어로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있다. 특별히 명품이 자신의 취향에 맞고 또 그걸 사고, 사용함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단지 명품사유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단지 유행과 자기과시를 위한 명품사유는 큰 문제다.

권혁(인문·사학 01)군은 "최근의 대학생들의 소비행태를 보면 경제력이 무너져나가는 생각이 든다"며 "자기과시를 위해 돈을 너무 쉽게 쓰고 또 그걸 깊은 능력 역시 없다"고 말한다. 세속에 이학한 이경아(인문)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품이든 값싼 명품이든 명품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명품사유들의 문제점은 비싼 옷이나 유명 브랜드의 액세서리도 사들여 사용하는 사회적 풍토가 대학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명품은 신분의 상징으로 생각되고 단지 명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까지 상류층(술적)적 정확할 구별도 없지않아 생겨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이런 점이 눈에 띄는 소비를 부르고 감당 못 할 정도가 되면서, 이왕의 말처럼 자신의 신분이나 남에게 보여지려 드는 것은 단지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명품을 선호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 명품이란 말 자체가 그것이 자신에게 맞고 또 부담스럽지 않다면 명품사유가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단지 남들이 하나만, 자기과시의 목적으로 명품을 선호한다면 그런 큰 문제다. 절반 명품으로 하고 속은 텅 비었다면 그와 과연 이름대로 명품이 어울리는 명품족이 될 수 있을까? 장인의 노력과 정신이 들어있는 훌륭한 명품처럼 위대한 자기과시가 아닌 보다 내면적의 자기완성에 힘쓰는 훌륭한 대학생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종현 기자

bpress@korea.com

영희평 · 증독

사랑에 관한 엇갈린 두가지 보고서

가주 조각가인 형 호진(이영 분)이 아내 은수(이영 분)를 위해 지은 그림같은 집은 호진, 은수 그리고 호진의 동생 대진(이영 분)이 함께 산다. 그런 대진의 곁에는 그를 향한 해바라기 사랑 애주(박선영 분)가 항상 있다. 행복만 보던 세 사람에게도 불행이 다가온다. 같은 날 동시에 카레라이온 동생 대진이 시립중 사고를 당하고 호진 역시 경기를 보러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다. 1년 뒤 대진은 의식을 회복하지만 호진은 의식을 찾지 못한다.

와시이 돌아온 대진은 자신을 호진이라고 주장하고 병원에서 병의(영희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 가능성을 제기한다. 남편의 슬픈과 위환까지도 똑같은 대진에게 은수는 호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젊은 사랑을 나누다. 그 사이 호진은 뇌사관정을 받게 된다.

아는날 대진이 없는 사이 애주의 편지를 통해 은수는 대진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게된다. 하지만 은수는 대진의 그 지독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병적인 집착〉

전실이 추할 때는 감춰두는 것도 미약하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대진은 분명 은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자신을 형의 모습으로 위장했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병명한다. 자신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병환한 사랑의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하다. 사랑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를 진실으로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진은 자신의 사랑을 거짓으로 포장해 은수에게 다가갔다.

“대진의 감정은 사랑이라 미뤄볼 수 없다”

〈지독한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낭만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인스피어의 비극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은수에 대한 대진의 사랑은 그동안 말쑥했던 사랑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켜준다. 대진은 형수와 시립중이라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고, 결국 자신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진의 이런 사랑의 방식은 은수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사랑들은 이러한 대진의 사랑을 집착이라고 이야기한

“도덕이라는 것대로 사랑을 계산할 수 있을까?”

다. 하지만 이 지독한 사랑을 기만한 자기과이며, 집착으로 인한 병적인 증세라고 일축해버리려는 그의 사랑이 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된다.

대진의 지독한(어쩔면 미안하다고 표현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도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기 전에 어쩔 수 없었던 대진의 상황으로 변명하고 싶다. 한보다 먼저 은수를 사랑했기 때문. 자신에게 소중한 것. 사랑을 할때에도 소중한 것을 앞세워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대진의 이런 사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진의 부도덕적인 사랑방식은 불가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었었던 것이다.

불가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대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괴로워했고, 포기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지독한 사랑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아예 왜 그 길을 가느냐 손가락질하며 막을 권리는 없다. 대의 사랑도 마한가지이다. 그는 한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을 뿐이다.

김종현 수습기자

yonghuh2000@hanmail.net



현석이 담임 선생님께

어려운 농촌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전직부터 한해 찾아와서 봤지만, 사는데 고생하느라 한해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인사할 도리가 없어 죄송합니다. 11월 13일은 서울에서 농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농사가 포기되어도 팔면은 정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농민들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농사도 없다며 "할 수 없이 반대! 한-철레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외치며 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해서 농촌에 막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는다고 정부에서는 땅 사, 비닐하우스 지으려며 대충도 해주었습니다. 몇 년 농사지으면 정부에서 출당금도 주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제비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농산물 가격은 미칠만 떨어졌고 울라갔다 여려갔다 하더니 이제는 밀이타까지 내려가 버렸고, 다온 건 다 무너져서 팔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깨져버렸습니다.

둘러하니 우리농민이 만든 농산물은 국민의 28%밖에 못 먹인다는 얘이 날아다니니 이 배가 안 갑니다. 더구나 땅이 날아도는데 땅을 수입한다면서요. 내 땅은 머리로든 도둑이 이틀을 못하겠습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나라의 국민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꾸만 죽이는 쪽으로만 가는지...

둘째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하나같이 걱정합니다. "우리 땅값이 비싸고요? 수입값이 싸니까 사다민도 이익이 아니냐고? 다 미친 소리여!" "땅값이 있는 사람 모두 떠나고 농촌이 텅 비버려도, 그래도 외국인이 땅 잘 갖어? 가들이 어쩔 농민이여!"

현석이 믿음은 모든 부부의 전설을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다. 도시에 못지 않게 잘 가르치고 있었습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를 보냈고 아무리 아파도 정력은 안 시였습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현실로는 남들 다 하는 피나한 학원이나 영어 학교도 못 지킬 형편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아 살고있을 것을 슬습다. 아이를 부끄럽게 해라는 것을 이해하러 주십시오.

2002년 11월 15일

현석이 엄마 드림

